



‘쁘띠 야타나! 프리미엄 호주 샤르도네의 교과서’

펜폴즈 빈 311 샤르도네

Penfolds BIN 311 Chardonnay

지역	애들레이드 힐즈 > 타즈마니아 > 톰바룸바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2.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3~15℃		
테이스팅 노트	얇게 슬라이스된 오이, 라임, 감귤 등의 프레시함, 생동감이 돋보인다. 서늘한 3곳의 지역(애들레이드 힐즈, 타즈마니아, 톰바룸바)에서 만들어진 저마다 다른 스타일의 샤르도네지만 라이트한 텍스처, 기본 좋은 산도, 샤르도네 포도의 순수함, 깊이 있는 플레이버가 훌륭하게 조화되어 빈 311 샤르도네로 표현되었다. 숙성 포텐셜이 있는 프리미엄 샤르도네 와인이다.		
페어링 TIP	흰 육류/ 해산물/ 채소(샐러드)/ 매운음식		



제품설명



빈 311 샤르도네'는 호주 내 서늘한 지역으로 꼽히는 애들레이드 힐즈, 타즈마니아, 톰바룸바에서 최적의 샤르도네만을 엄선해 만든 프리미엄 화이트 와인이다. 포도가 최고로 잘 자라는 지역, 만들고자 하는 스타일에 부합하는 최적의 포도 '만'을 엄선한 와인메이커의 정신이 여실히 반영된 제품으로 레몬, 라임의 시트러스한 아로마와 미네랄리티,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산미감의 밸런스가 훌륭하며 프렌치 오크에서의 숙성과 배럴 숙성을 통해 복합적인 미감을 완성시켰다. 뿌띠 야타나라는 애칭이 있는 프리미엄 호주 샤르도네 와인이다.

와이너리



호주 국보급 와인으로 꼽히는 펜폴즈(Penfolds)는 1844년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크리스토퍼 로슨 펜폴즈(Cristopher Rawson Penfolds)가 치료 목적으로 와인을 처방하기 위해 와이너리를 건립하며 역사가 시작된다. 빈티지에 따른 와인 맛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특유의 멀티 리저널 블렌딩 기법 도입, 제품별 pH 도수 확인 등 호주 와인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그랜지(Grange)'를 비롯해 뛰어난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펜폴즈의 대표 와인은 '그랜지(Grange)'로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손꼽는 명주로 꼽힌다. 호주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51년 생산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파커는 '그랜지'를 가리켜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레드와인"이라 찬사를 쏟은 바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